

한국어 화행 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간언어 연구*

- 학습자 모어에 따른 금지화행 수행을 중심으로 -

이은희
(고려대학교)

<Abstract>

Lee Eun Hee. 2016. A Study on Interlanguage for Korean speech act education. *Korean Semantics*, 53. : This study analyzed Korean language learners' interlanguage to examine the learners' Korean speech act of Prohibition. The analysis was made focusing especially on the learners' mother tongue.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discussed the education Korean speech act education of Prohibition according to their mother tongue(Chinese, Japanese, Mongolian, Vietnames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attempt to clarify the aspect of Korean speech act of Prohibition through analysing the interlanguag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fact that learners produce similar errors, irrelevant of their mother tongue. But this study intended to reveal that 'speech acts' is largely effected by the learners' mother culture and language, and therefore could be made by them.

Among the 9 prohibition situations presented in this paper, 7 situations showed prohibition speech acts vary by their mother tongue. Therefore, an accurate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he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 1A5B5A07038232)

features and strategy of the learners' interlanguage by their mother tongue will lead to speech education with higher efficiency.

핵심어: 화행(speech acts), 중간언어(interlanguage), 금지 화행(speech act of Prohibition), 전략(strategy), 오류(error), 전이(transfer), 한국어교육 (Korean language teaching), 분석(analysis), 교수 방법 (teaching method)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금지 화행 양상을 분석하여, 한국어교육에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언어권별로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른 금지 화행 수행에 주목한다.

중간언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학습자 오류의 원인이, 학습자 모어의 영향보다는 목표어 자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을 밝혀 왔다. 즉 중간언어 분석 결과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와 상관없이 목표어에서 서로 비슷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표 중 하나는, 학습자 중간언어 분석을 통해 ‘화행’의 경우는 학습자의 모어나 모문화의 영향이 화행적 오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다.

‘화행’은 특히 학습자의 모국어나 모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 모어는 목표어 화행에 영향을 미쳐 학습자는 모어에 따라 서로 다른 화행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타인의 잘못을 명확히 신고하는 것을 규범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 발화할 때 우회적으로 말하기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의 잘못에 대한 금지를 표현하는 상황에서도 돌려 말하지 않고 분명하고 직접적인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한국어 간접 표현을 알고 있더라도, 자기 의견을 분명히 나타내는 전략을 선호하여 ‘-지 마세요’ 라는 ‘서법’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제하는 문화를 습득해 온 일본인의 경우, 남에게 직접 강하게 금지를 표현하는 것을 꺼리

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어 발화 습관에서도 연결어미로 끝맺거나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직접 표현으로 금지화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생략하기’ 전략과 같이 우회적인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지’는 기본적으로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금지화행은 청자의 체면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행이다. 따라서 금지화행은 한국어 모어 화자조차도 화청자 관계나 상황, 맥락 등을 파악하여 조심스럽게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쉽지 않은 금지화행을 학습자가 제대로 익혀 원활히 의사소통을 이루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은희(2015)에 따르면 화행 교육은 현실적으로 내국인 화자보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다. 더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들은 최대한 한국어 화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한국어 화행을 수행하고 싶어 한다. 한국인 역시 고급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인과 비슷한 화행을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화행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특정 화행에 대한 탄탄한 기초 연구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문법 차원을 넘어서 화행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화행 양상도 정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 중간언어를 분석하여 학습자 모어에 따른 금지화행 수행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금지화행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금지화행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아직도 연구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앞선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금지’를 독립 범주로 다룬 최초의 연구로 김영란(1999)이 있으며 국어 금지화행의 성립 조건과 범위 및 구체적인 국어 표현들을 논의한 성은실(2010)이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금지 표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은희(2012)에

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금지화행 수행 표현의 세부 기능과 기능 분석 기준을 제시하는 등 보다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금지화행의 ‘전략’이 아닌 ‘표현’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금지화행 수행 ‘전략’을 고려한 연구는 이은희(2014)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화행 교육을 위한 표현 형태의 유형화는 어렵지만 전략의 유형화는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빈도로 사용되는 금지 화행 전략을 추출하고, 해당 전략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은희(2014)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간접화행 교육의 부재 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전략을 단순히 주전략 하나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금지화행 전략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이은희(2015)에서 시도되었다. 이은희(2015)는 한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화행 전략을 주전략과 보조전략으로 나누어 화행 수행 시 나타나는 무브(Move) 수와 무브 사용 빈도, 전략 패턴 등을 비교, 분석하여 금지화행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행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금지화행, 특히 학습자 모어에 따라 나타나는 한국어 화행 실현에 주목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금지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발화 행위이며, ‘금지’는 행위지시의 일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CSARP(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에서 사용한 ‘지시화행 전략’의 틀을 적용한다¹⁾. 이은희(2012), 이은희(2014)에서는 CCSARP의 틀을 한국어 지시화행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어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 틀로 사용한 바 있다. 본고는 이 두 논의에서 사용했던 틀을 재검토하여 한국어 금지화행 전략을 최종적으로 <표1>과 같이 수정하였다. 즉, 지시 단계를 ‘직

1) CCSARP에서는 지시화행의 간접성을 보여주는 단계와 9가지 하위 전략을 제시하는데, 직접 화행과 간접화행을 모두 포함한다. CCSARP에서 사용한 이 분석 틀은 8개 언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어의 지시 화행 전략 연구나 금지 화행, 화행의 대조 분석 등의 선행 연구도 종종 사용되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집'과 '간접'으로 분류함으로써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의 전략을 쉽게 구분하도록 하였고, 확실한 단서와 불확실한 단서로 구분했던 전략을 '단서 제공'으로 묶어 구분하지 않았다.

<표1> 한국어 금지 화행 전략 (이은희, 20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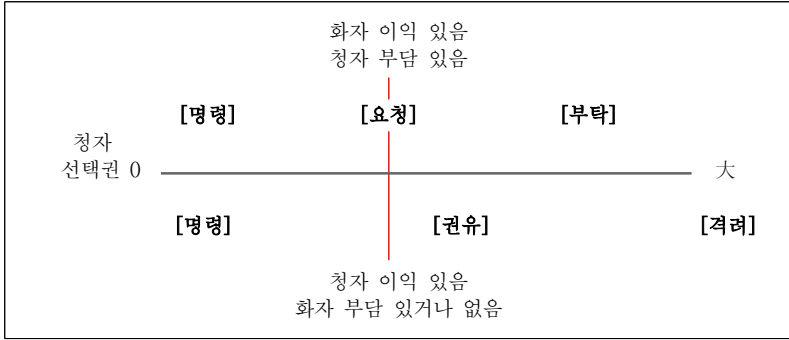
지시 단계		전략
직 접	직접적, 명시적 지시 단계 (The most direct, explicit level)	<1>서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2>명시적수행표현(Explicit performatives)
	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 (The conventionally indirect level)	<3>발화 의미로부터 도출 (Locution derivable)
		<4>화자 의도 언급 (Scoping stating)
		<5>제안성 어구 (Suggestory formula)
		<6>예비적 조건 언급 (Reference to Preparatory conditions)
간 접	비관습적, 우회적 지시단 (The nonconventionally indirect level)	<7> 단서 제공(Hints)

또 본고의 금지화행의 세부 기능 분류는 이은희(2012:21~43)을 따르기로 한다. 이은희(2012)는 柏崎雅世(1993)에서 제시한 기능 분류의 척도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보인 바 있다²⁾. 본고의 금지화행 전략 분석을 위한 세부 기능 및 기능 분석 기준은 <표2>와 같다.

2) 이 척도는 Leech(1983)의 화용론적 척도를 일본어 지시적 표현에 적용하기 위해 변형한 것이다. 원문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 번역)

“間接性の尺度は、表現形式をより間接的(婉曲的)なものに変化させることによって丁寧さを増大させることを量る尺度である。本書では一表現が發話においてはたず機能を規定するので、表現は固定させて考える。したがって、間接性の尺度を除いて選擇性の尺度と負擔利益の尺度を行爲指示型表現の背景的條件としてスケールに用いることにする。柏崎雅世(1993:31~35) (간접성의 척도는 표현 형식을 보다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공손함을 증대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본서에서는 한 표현이 발화에서 행하는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표현은 고정시켜 생각한다. 따라서 ‘간접성 척도’를 제외하고 ‘선택성 척도’와 ‘부담 이익의 척도’를 행위 지시형 표현의 배경적 조건으로 하여 이를 척도로 이용하기로 한다)”

<표2>금지표현의 세부기능과 기능 분석 기준(이은희, 2012)



3.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금지화행 수행 양상

3.1. 조사 도구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CCSARP에서 사용한 행위 지시 전략의 틀을 한국어 금지화행에 적용해 세부 기능을 분류한 이은희(2012)³⁾을 참고하여 조사도구를 준비하되, 전문가 20인⁴⁾에게 의뢰하여 문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 이는 조사도구가 금지화행 수행 양상을 살피기에 적합한지 검토해 보고, 보다 유의미한 조사도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에 대한 상황적절성을 5간 척도로 재조사하여 조사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⁵⁾.

3) 이은희(2012)의 조사도구는 柏崎雅世(1993)에서 제시한 척도를 한국어 금지 표현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보인 바 있다. 柏崎雅世(1993)의 척도는 Leech(1983)의 화용론적 척도를 일본어 지시적 표현에 적용하기 위해, 고정된 표현 형태 분석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것이다.

4) 조사 집단은 (한)국어 전공 교수 5인,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 및 대학 강사 5인, 외국어교육 전공 교수 1인, 경력 7년 이상인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사 9인으로 구성되었다.

5) 본고의 제조사에서는 이은희(2012)와 마찬가지로 상황적절성 평균값이 3.5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대부분 선정 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은희(2012)의 [1]상황은 최근 유인물 출력이 개별화되거나 자율 복사기기 이용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상황적절성 평균값이 낮았기에 [1]항목을 복사가 아닌 책 제본을 찾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은희(2012)의 [4]동아리방 벽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상황 역시 최근에는 사진을 SNS 등에서 공유하므로 일부러 사진을 출력하여 부착하는 행위는 많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연구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4개 국가 출신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설문항목이나 조사방법, 절차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나 언어권별 학습자끼리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문항이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변인으로 설정했던 대화자 간의 힘의 크기나 친소 관계 역시 화행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황적절성조사 및 예비조사에서의 결과를 참고로, 최종적으로 본조사 도구를 <표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3> 조사 문항의 상황과 상황적절성 평균값

기능	번호	상황	상황적절성 평균값
[요청] (+화자이익/청자 선택권 보통)	1	룸메이트에게 벽에 사진 부착 금지	3.9
	2	친구에게 비밀 누설 금지 요청	3.8
	3	선배에게 심한 장난 금지	4.1
	4	극장 뒷자리 여고생에게 발차기 금지	4.5
[명령] (+화자이익/청자 선택권 적음)	5	컴퓨터실 조교가 학생에게 게임 중단 지시	4.3
[권유] (+청자이익/청자 선택권 조금 많음)	6	책 제본 찾으러 가게에 들르지 말 것 권유	3.7
	7	팔초 친구에게 금연 권유	4.3
[부탁] (+화자이익/청자 선택권 많음)	8	상사에게 회사 회식 때 노래를 시키지 말 것을 부탁	3.8
[격려/관용] (+청자이익/청자선택권 아주 많음)	9	후배에게 나의 건강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함	3.9

조사 대상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120명의 한국어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많은 언어권, 즉 중국어권,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몽골어권 학습자로 한정하며, 토픽 5~6급(일부 4급상 이상)⁶⁾ 수준의 유학생 각 30명씩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에게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Discourse Completion Test)를 실시하여 금지화행 수행 양상을 언어권별로 분석한다.

6) 낮은 숙달도의 학습자의 경우, 다양한 화행 전략을 사용한 화행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DCT를 정확히 이해하여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숙달도 변인은 통제하였다.

3.2. 결과 분석

본고에서는 금지화행의 세부 기능(명령, 부탁, 요청, 권유, 격려/기원)별로 학습자의 금지화행 수행 양상을 살펴본다. 조사 대상자의 숙달도는 대부분 고급이었으며 어휘나 문법적 오류는 많지 않았다. 간혹 연결어미나 조사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특히 학습자 모어에 따라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특이한 화행 수행 방식, 전략, 유의미한 특징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2.1. [요청]기능의 금지 화행

(1) 상황1: 룸메이트에게 방 벽에 사진 부착 금지하기

이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와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화행을 수행한 것은 베트남인 학습자들과고, 타 언어권 학습자들은 서로 공통점 없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화행을 수행하였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인들처럼 대안을 제시하거나 금지 이유를 말함으로써 금지하는 간접화행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으)면 좋겠어’와 같은 ‘화자의 의도 언급’과 ‘서법’ 전략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베트남인 학습자의 화행에서는 ‘금지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회나 나타났는데, 몽골인 학습자의 응답(1회)을 제외하면 이런 반응은 한국인을 비롯한 타 언어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매일 얼굴을 보는 친구와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금지 발화를 꺼린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몽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화자와 가장 다른 전략으로 화행을 수행하였는데, 한국인이 가장 선호한 ‘대안 제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인이나 타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직접화행, 즉 ‘화자의 의도 언급’과 ‘서법’ 전략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인 학습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간접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들은 직접 전략 중 ‘-(으)면 안 될까?’와 같은 ‘예비적 조건 언급’이 두드러지는데(약 33.3%), 이는 일본어의 ‘-なければならぬ(-지 않으면 안돼)’의 직역 표현이 목표어 발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 룸메이트에게 벽에 사진 부착 금지

	전략	표현 형태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직접	서법	붙이지 마/말아 줘	2	4	8	4
	금지 부사	그만 해, 그만 붙여	3	2	1	0
	발화 의미로부터 도출	붙이면 안 돼.	0	1	0	0
	예비적 조건 언급	안 붙이면/붙이지 않으면 안 될까?	10	6	4	3
	명시적 수행 동사	뺏시다! 떼, 떼라, 빼자	3	1	1	0
	화자의 의도 언급	-말아 주면/줬으면 해	2	4	9	4
간접	대안 제시	다른 데 붙이면 어떨까?	8	4	0	8
	금지 이유	땀 때 힘들어	7	4	4	6
계			30	26	27	25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말 안 함 등)			0	4	3	5

(2) 상황2: 친구에게 비밀 누설 금지하기

이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금지화행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수행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인들은 ‘발화 의미로부터 도출>서법>간접 표현’ 순으로 전략을 사용하였음에 비해⁷⁾, 학습자들은 언어권에 상관없이 모두 ‘서법>발화 의미로부터 도출>간접 표현’ 순으로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 오류가 모어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한국인들의 ‘발화의 의미로부터 도출’ 전략 선호가 오히려 특이한 현상일 수 있다. 이 상황은 금지강도가 높아야 하므로 강한 금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지 마’와 같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습자 중간언어에서 서법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이 상황에서 한국인에게서 나타났던 전달형 표현이 모든 학습자들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인들만의 특이한 화행이나 학습자가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화행 정보는 언어권과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7) 이하 본고에서 언급하는 한국인 대상의 금지화행 수행 결과는 모두 선행연구 이은희(2012)를 참고한 내용임을 밝힌다.

것이다.

이 상황에서 특히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화행이 특이한데 ‘서법’을 22회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발화의미로부터의 도출’ 4회, 그리고 한국인들에게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간접 전략은 단 1회 사용하였다. 또 몽골 학습자들은 타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비밀’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5> 친구에게 비밀 누설 금지

		표현 형태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직접	서 법	말하지 마(라)	14	16	10	22
	명시적 단어	비밀이다	2	1	8	2
	발화의미로부터 도출	말/얘기하면 안 돼	8	6	3	4
	전달형	말하지 말래	0	0	0	0
	화자 의도 언급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0	0	2	0
간접	금지 이유 설명	알려 주면 우리 F 받아.	6	6	4	1
계			30	28	27	28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0	2	3	2

(3) 상황3: 선배의 심한 장난 금지하기

매우 높은 강도로 금지화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어 화자들은 금지부사 ‘그만’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고 서법 사용도 많았던 반면, 학습자들의 화행은 공통점이 거의 없이 각각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인과 가장 비슷하게 화행을 수행한 것은 몽골어권 학습자인데 간접 전략이 9회, 금지부사 사용도 9회로 타 언어권에 비해 많았으며, ‘예비적 조건 언급’ 전략의 사용이 0%였다. 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이 상황에서 강한 금지를 위해 ‘서법’을 많이 이용했고, 사용 전략도 다양하지 않으며 한국인의 화행에 많이 쓰이는 금지부사나 간접 전략의 사용빈도는 낮은 편이다. 한편, <상황3>과 같이 강한 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일본인 학습자들은 간접 전략을 사용한 경우가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었는데, 이는 선후배 관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6> 선배의 심한 장난 금지

	전략	표현 형태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직접	서법	하지 마세요	8	7	6	12
	발화의미로부터 도출	하면 안 돼요	0	1	0	0
	명시적 수행 동사	삼가/자제해주세요	0	0	0	0
	금지부사	그만 해요	4	7	9	4
	화자의도 언급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	3	6	4
	예비적 조건 언급	안치시면 안돼요?	0	1	0	0
간접	협박하기	신고할 거예요.	2	7	5	6
	기분/상황 설명	기분 나빠요	14	2	4	2
계			30	28	29	28
무응답 및 응답 오류 (대답 안 한다 등)			0	2	1	2

(4) 상황4: 영화관 뒷자리 사람에게 내 좌석 차기 금지 요청하기

이 상황은 모르는 사람에게 금지하는 상황이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화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한국인 응답자의 50% 이상이 ‘차지 마세요 /말아 주세요’ 같은 ‘서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언어권별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화행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서법’ 전략을 가장 선호했지만 일본인 학습자는 ‘우회적 표현’ 전략을 가장 선호하여 과반수 이상이 간접화행으로 금지화행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예의’나 ‘공공질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금지를 표현한 경우가 많았고,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명(약 13.3%)이나 있었다. 이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기본 예의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인의 문화가 발화 거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은 ‘서법’과 ‘우회적 표현’을 비슷한 빈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인 응답자의 16.6%에 해당하는 5명은 ‘말로 차고 있는데, 발 좀 챙기세요, 발 좀 가만 두세요’ 등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간접화행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유독 중국인 학습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 이 상황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사과하기’ 전략이 고빈도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몽골인 10명(약 35.7%), 일본인 14명(약 53.8%)은 ‘죄송한데요, 실례하지만’과 같은 사과 표현을 덧붙여 금지화행을 수행하였는데 화자

는 모두 여성이었다. 그런데 언어권과 상관없이 남성들에게서는 ‘사과하기’ 전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대화자 간의 힘의 크기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금지를 요청할 경우, 자칫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약한 여성들은 갈등 상황을 피하고 무례함을 완화하기 위해 사과 표현을 덧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7> 극장 뒷자리 여학생에게 내 좌석 발로 차지 말 것 요청

	전략	표현 형태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직접	서법	차지 마세요.	6	11	16	24
	예비적 조건 언급	안차시면 안 될까요?		5	2	4
	화자 의도 언급	안 차시면 고맙겠어요.	2	2	1	0
	금지부사	그만해요	2	1	4	2
간접	우회적 표현	집중 안돼요. 예의 없어요? 공공장소예요. 발좀 챙겨요	15	11	5	0
	계		26	30	28	30
무응답 및 응답 오류 (그냥 쳐다본다 등)			4	0	2	0

3.2.2. [명령]기능의 금지 화행

(1) 상황 5: 컴퓨터실에서 게임 금지하기

힘의 크기에서 우세한 화자가 청자에게 금지를 지시하는 [명령]상황이다. 이때 한국인들은 직접화행에 해당되는 ‘-(으)면 안 돼요’나 금지부사 ‘그만’의 사용이 많았으며 응답자의 약 73.9%가 직접화행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간접화행도 ‘원칙 강조’ ‘금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강조’ 등 비교적 지시 강도가 높은 금지화행을 선호하였다. 학습자들은 일본인 20명(약 66.6%), 몽골인 20명(약 71.4%), 베트남인 24명(약 82.8%), 중국인 13명(약 46.4%)이 직접화행, 특히 ‘발보 의미로부터 도출’ 전략을 사용하였고 금지강도가 높은 ‘서법’은 약 16.1%로 사용빈도가 낮은 편이다. 직접화행 수행 시에는 일본인과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인과 가장 비슷하게 화행을 수행하였는데 그럼에도 서법

사용의 비율은 일본인 약 6.7%, 베트남인 6.9%로 한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중국인과 몽골인 학습자들은 금지 부사 ‘그만’의 사용빈도가 0%로 나타났다. 한편, 간접화행에서는 언어권별 학습자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인과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화자들과 달리 ‘원칙 강조하기’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몽골인과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일종의 협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금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명령]기능을 수행하는 간접화행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나 타 언어권 화자들과는 사용 전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 컴퓨터실에서 게임 금지하기

	전략	표현 형태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직접	발화의미로부터 도출	게임하면 안돼요	8	7	11	12
	금지 부사	그만 하세요	8	0	0	10
	명시적 수행 동사	금지입니다	0	4	6	0
	서법	게임하지 마요	2	0	0	2
	행위 동사	자제해 주세요	2	2	3	0
간접	금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용 정지 시키겠습니다.	2	3	0	0
	대안 제시	피시방에 가요	4	2	2	2
	원칙 강조	규칙 지킵시다,	0	1	1	0
	기타	피시방 아니에요	4	9	5	3
계			30	28	28	29
무응답 또는 답 오류			0	2	2	1

3.2.3. [권유]기능의 금지 화행

(1) 상황 6: 책 제본 찾으러 가게에 들르지 말도록 전화하기

이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금지화행은 한국인이나 다른 언어권 화자들과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베트남인 학습자는 27명 중 7명(약 26%)이 보조전략으로 ‘(미리 알려주지 않아) 미안해’ 와 같은 사과 표현을 덧붙여 화행을 수행하였다. [권유]는 기본적으로 [+칭사이익]이므로, 실제로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은 이 때 사과나 고마움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데 베트남인 학습자 중에는 이 상황을 청자배려의 상황이라기보다 약속을 달리 이행하고 있는 데 대한 미안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때 나타나는 사과 표현을 자연스럽게 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표9> 제본 찾으러 가게에 들리지 말도록 금지

	전략	표현 형태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직접	서법	오지마, 가지 마	8	5	3	7
	예비적 조건 언급	들을 필요 없어, 안와도 돼	12	16	11	15
	명시적 수행동사	바로 강의실 와, 수업에 와	5	2	10	5
간접	우회적 표현	내가 찾아 갈게, 지금 어디야?	6	5	4	0
	계		29	28	28	27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1	2	2	3

(2) 상황 7: 골초 친구에게 조언하기

이 상황은 [+청자이익]이지만 금지 행위인 ‘금연’ 자체가 청자의 의지로 쉽게 이행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인들은 단서만 제공하는 간접 금지를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금지 강도 높은 금지부사 ‘그만’의 사용을 선호하였다. 대조적인 두 전략이 비슷하게 고빈도로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과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이 상황에서 ‘서법’, ‘금지부사’ 사용빈도가 높으며 비교적 강도 높은 금지화행을 수행하였다. 또 일본인 학습자는 한국인들이 3번째로 선호한 명시적 수행동사 ‘끊다’의 사용빈도가 0%였는데 이는 학습자 모어의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담배 끊다’에서 수행동사 ‘끊다’는 일본어로 ‘やめる(그만두다, 멈추다)’가 주로 쓰이는데⁸⁾ 학습자가 한국어로 ‘담배 끊다’라는 표현을 특별히 익히지 않았다면 한국어 수행동사 ‘끊다’의 선택이 어려워 아예 회피전략을 사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학습자 모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용빈도 높은 관용 표현은 해당 언어권 학습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과 가장

8) 물론 사용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とめる, たつ(끊다)’가 쓰이기도 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화행을 수행한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인데 서법 사용빈도가 높고 단서 제공의 간접화행을 선호하였으며 금지부사 사용빈도도 높는데, 강도가 낮은 금지부사 ‘적당히, 조금만’을 선호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은 금연 지시에 있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흡연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금지 화행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흡연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한국어 화행에도 반영되어 비교적 금지 강도가 낮은 한국어 표현으로 수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 10> 골초 친구에게 조언

	전략	표현 형태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직접	서법	피(우)지 마(라)	14	5	2	10
	금지 부사	그만/적당히 피워	10	7	9	10
	명시적 수행동사	끊어, 끊어라	0	4	8	2
	제안성 어구	끊는 게 어때?	2	2	4	1
	화자의도 언급	안 끊으면 좋겠어	0	1	0	2
	예비적 조건 언급	끊으면 안 돼?	2	1	2	0
간접	단서 제공	담배 진짜 싫다	2	9	4	4
계			30	28	29	29
무응답 또는 응답 오류			0	1	1	1

3.2.4. [부탁]기능의 금지 화행

(1) 상황 8: 노래 시킴 금지하기

직장 상사인 청자에게 선택권이 많으며, 화자의 간절함이 더해지므로 기능 분류 기준에 따라 [부탁]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이 때 한국인은 응답자의 약 73.2%가 직접 전략을 사용한 반면 학습자는 언어권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단서 제공’의 간접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인이 고빈도로 사용하는 전략과 표현을 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중간언어에 나타난 금지화행은 언어권별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29명 중 18명(약 62%)이 ‘대신 춤추면 안 될까요? 술 마실게요’ 등 ‘단서 제공’ 전략 중 ‘대안 제시’로 화행을 수행하였다. 응답자 29명 중 4명(약 13.8%)만 대안 제시를 한 일본인 학습자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일본인 학습자가 선호하는 전략은 ‘목이 아파서, 부담스러운데’ 등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전략으로 응답자 중 19명(약65.5%)이 전략을 사용하였다. 몽골인 학습자도 간접 화행을 직접화행보다 조금 더 사용하였는데, 직접화행 도 타 언어권 학습자들의 직접화행 사용빈도와 비교해 보면 높은 편이다. 몽골인 학습자들은 직접화행에서 한국인과 달리 ‘서법’(약22.2%)이나 ‘화자의 의도 언급’(약14.8%) 전략을 선호했다.

<표11> 노래 시킴 금지

	전략	표현 형태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직접	서법	말아 주세요	1	1	6	2
	화자의도 언급	의지/희망 표현	3	3	5	6
	예비적조건언급	-면 안될까요	2	4	1	2
	명시적수행동사	부탁드립니다.	1	1	0	2
간접	단서 제공	춤게요, 목 아파서요	22	21	15	16
계			29	29	27	28
무응답 및 응답 오류			1	1	3	2

3.2.4. [격려/기원]기능의 금지 화행

(1)상황 9: 내 건강 걱정하는 후배에게 걱정하지 말도록 말하기

아르바이트로 피곤해 보이는 나를 걱정하는 후배에게 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한국인들은 ‘화자의 입장 전달하기’를 가장 선호했고(44.3%), ‘고마움 표현’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였다(18.5%). 학습자 중 간언어에서 한국인과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화행을 수행한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다. 또 중국인과 몽골인 학습자의 화행 양상이 비슷하고, 일본인과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중국인과 몽골인 학습자들은 한국

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황이나 금지 이유를 설명하는 간접화행이 많았는데, 일본인과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걱정해 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주전략으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일본인 학습자들은 16명(약 53.3%)이 ‘고마움 표현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표12>내 건강 걱정하는 후배에게 걱정 금지시키기

	전략	표현 형태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직접	서법	걱정하지 마	6	7	9	9
	예비적 조건 언급	걱정 안 해도 돼	0	0	0	0
간접	화자의 입장 전달	돈 필요한 상황이야, 여기 진짜 좋아	8	13	11	8
	고마움 표현	고마워,	16	8	7	11
	기타	내가 알아서 해, 너나 잘 해	0	1	1	2
계			30	29	28	30
무응답 및 응답 오류			0	1	2	0

4. 중간언어 분석을 통한 금지화행 교수 학습 방안

지금까지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한국어 금지화행 수행 양상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제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 방안은 교육 내용과 방법 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연구의 정밀함을 위해 범위를 교육 내용으로 한정한다.

학습자들의 금지화행은 한국인의 화행이나 학습자들끼리의 화행이 모두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학습자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 내용을 둘로 나누어 제시한다. 즉 학습자 모어와 상관 없이 공통으로 제시할 공통 내용과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내용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특히 금지화행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4.1. 한국어 금지화행의 교수 학습에 공통으로 포함할 내용

화행은 모어 화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는 학습자 모어와 상관없이 학습자들에게서 두루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공통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첫째, 강한 금지가 요구되지만 청자에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질 때, 한국인들은 금지 강도를 낮춘 화행을 수행하는데 이 내용을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친구에게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요청] 시, 학습자들은 한국어 화자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화행을 수행하였다. 학습자의 화행이 모어 화자와 이렇게 다른 경우는 <상황2>가 유일하다. 친구에게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금지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서법’보다 ‘-(으)면 안 돼’와 같은 ‘발화 의미로부터의 도출’ 전략을 훨씬 선호한다는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타인에게 지시 받은 금지 사항을 제3 자에게 지시할 때 한국인들은 전달형도 적지 않게 사용하는데 학습자 중간언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전달형을 통해 금지 발화의 강도를 낮춘 전략을 사용한 것인데, 고급학습자에게는 이러한 전략도 교육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강한 금지 상황에서 사용되는 금지부사 ‘그만’에 대한 적절한 교수 학습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신체 접촉 등에 대해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금지 강도가 가장 높은 상황일 수 있다. 한국어 화자들은 이 상황에서 ‘그만 하세요’와 같은 강한 금지 표현으로 직접화행을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학습자들의 금지부사 사용 빈도는 매우 낮았다. 상대방의 힘의 크기와 관계 없이 강한 금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금지부사 사용 전략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청자에게 선택권이 많이 부여되는 [부탁]기능에서 특히 청자의 힘의 크기가 큰 경우, 적절한 금지 화행 교육이 필요하다. 직장 상사에게 노래를 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인 화자와 달리 간접화행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직장 상사에게 공손함을 포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즉 ‘예비적 조건 언급’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한국어 화자들이 실제로 ‘안-(으)면 안 될까요?’를 고빈도로 사용한다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자에 따른 적절한 한국어 화계 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한국인과 달리 금지를 지시하는 상황에서 청자가 친한 동아리 후배인 데도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쓰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몽골인, 중국인, 베트남인 학습자에게서 두루 나타났으며⁹⁾ 한국어 숙달도와도 상관없었다. 아무리 청자가 후배라도 청자의 체면 손상이 예상되는 금지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해체’를 알고 있지만 공손성을 포함하기 위해 ‘해요체’로 화계를 높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문법적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 고급학습자들도 화계 선택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선정하여, 청자의 힘의 크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적절한 화계 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4.2. 학습자 언어권별 한국어 금지화행 교육내용

4.2.1. 일본어권 학습자 대상 교육내용 구성 시 고려할 점

금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일본인 학습자들은 한국인 화자들과 달리 ‘예비적조건 언급’에 치우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전술했듯이 이는 일본어 ‘なければならぬ’의 직역 표현이 목표어 발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데 자연스런 화행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전략을 더 강조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다. 또 금연을 지시할 때 사용되는 ‘담배 끊다’라는 표현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일본인 학습자의 중간언어에서는 ‘끊다’로 표현되는 수행동사 사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수행동사가 다수인 학습자 모어의 영향일 수 있으므로 관용 표현으로 명시적인 제시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전반적으로 일본인 학습자들은 우회적인 간접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9) 그러나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후배 관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그리고 일본어에도 존재하는 화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있는데 강한 금지 화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3> <상황5>에서 ‘금지부사’나 ‘원칙 강조’ 전략 등이 더 효과적으로 화행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교육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4>에서 ‘예의’나 ‘공공질서’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화행 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지도도 필요해 보인다. 또 일본인 학습자들은 노래 시킴을 금지하는 [부탁] 시 자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전략이 많이 나타났는데, 한국인들은 주로 직접 전략과 ‘안 -(으)면 안 될까요?’등 ‘예비적 조건 언급’ 전략을 월등히 선호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교수 학습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2.2. 중국어권 학습자 대상 교육내용 구성 시 고려할 점

중국인 학습자들은 [권유]와 [격려/기원]기능을 수행할 때, 한국인과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금지화행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화행 방식도 나타나므로 그러한 방식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금지화행 수행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명령]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금지부사 ‘그만’의 사용빈도가 0%였는데 한국인들이 고빈도로 사용하는 표현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 중국인들은 노래 시킴을 금지하는 [부탁]기능 수행 시, 약 62%의 응답자가 ‘춤추면 안 될까요?’ ‘대신 술을 마실게요’ 등과 같이 단서 제공하기 중 ‘대안 제시하기’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인 화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안 -(으)면 안 될까요?’ 등의 ‘예비적 조건 언급’ 전략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에 대한 교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영화관 뒷자리 여학생에게 좌석을 발로 차지 말도록 금지하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약 17%가 ‘발로 차고 있는데’ ‘발 좀 챙기세요’ 등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발화하였는데 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한국인이 듣기에 어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4.2.3. 몽골어권 학습자 대상 교육내용 구성 시 고려할 점

몽골인 학습자들에게 특히 교수해야 할 금지화행 교육 내용은 간접 전략 중 ‘대안 제시하기’로 분석된다. 룸메이트에게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요청] 상황에서 한국인 화자들은 ‘대안 제시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전략에 대한 몽골인 학습자들의 사용빈도는 0%였으며, 노래 시킴을 금지하는 [부탁]기능 수행 시에도 대안 제시의 빈도가 매우 낮았다. 또 몽골인 학습자들에게는 금지부사를 사용해야 하는 금지화행 상황, 즉 금지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만’의 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몽골인 학습자들은 선택의 심한 장난을 금지할 때에는 금지부사를 매우 적절히 사용하였으나 <상황5>의 게임 금지 상황에서는 금지부사의 사용빈도가 0%를 보여 금지부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몽골인 학습자들은 상사에게 [부탁]해야 할 때 간접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최고빈도로 사용하는 직접 전략 중 ‘예비적 조건 언급’의 구체적인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4.2.4. 베트남어권 학습자 대상 교육내용 구성 시 고려할 점

베트남인 학습자 중에는 [권유]기능의 상황을 [+청자이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한국인이나 타 언어권 학습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화행을 수행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후배에게 ‘내가 대신 갈 테니 제본 가게에 들르지 말 것’을 지시하는 상황은 [+청자이익]이며 청자의 선택권이 비교적 큰 [권유] 상황이다. 그런데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이 상황을 약속을 바꿔 이행하므로 화자가 미안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사과하기’ 전략을 덧붙여 사용하였다(응답자의 26%). 그러나 한국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사과 받는 것을 매우 생소하고 부자연스럽게 느낄 것이다. 부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것은 적절한 화행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¹⁰⁾.

10) 다만 이러한 화행이 상대방에게 무례하거나 모어화자들이 화행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

또 베트남 학습자들은 상사에게 노래 시킴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안 -(으)면 안 돼요?’ 같은 ‘예비적 조건 언급’ 전략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간접 전략으로 화행을 수행한 경우가 많다. 특히 ‘좀 봐 주세요’ 등 한국인이나 타 언어권 화자들이 직장 상사에게 전혀 사용하지 않은 표현으로 [부탁]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의 화행과 거리가 먼 독특한 화행 방식에 대해서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표현을 명시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한국어 금지화행 수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학습자의 모어에 따른 한국어 금지 화행 수행에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언어권별, 그리고 범언어적으로 한국어 금지 화행 교육에서 교육 내용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다루지 못했던 언어권별 학습자의 중간언어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금지화행 양상을 밝히는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중간언어 연구들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와 상관없이 서로 비슷한 오류를 양산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화행’은 모문화나 모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이것이 목표어 화행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에서 조사한 9가지 금지 상황 중 한국어 화자들과 다르게 학습자들(4개 언어권)끼리 비슷한 방식으로 화행을 수행한 경우는 [요청]기능의 <상황2>와 [부탁]기능의 <상황8>로 총 2개 상황뿐이었고, 나머지 7개 상황에서는 학습자 모국어를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화행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학습자의 중간언어에서 언어권별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에 대한 분석은 보다 효율적인 화행 교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어 교육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다수 학습자들도 고려해야 하

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외의 학습자들은 단일 언어권 화자들이 많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국외 학습자들의 금지 화행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란(1999), “한국어 금지 표현의 교수 방법”, 한국어교육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1-193.
- 성은실(2010), 한국어 금지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명령형 어미 연구”, 청람어문교육 40, 청람어문교육학회, 70-95
- 이은희(2012), 한국어 금지 표현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희(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공손 표현 연구-일본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문법교육19, 한국문법교육학회, 295-325.
- 이은희(2013), “금지 부사의 의미적 특성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의미학 41호, 한국어 의미학회, 111-140.
- 이은희(2014), “한국어 간접 지시 화행 교육의 실태와 교재 구성 방안”, 문법교육 20, 한국문법교육학회, 271-295.
- 이은희(2014),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간접 금지 표현 연구”, 이중언어학 55호, 이중언어학회.
- 이은희(2014), 한국어 화행교육, 서울 : 한국문화사.
- 이은희(2015), “한국어 금지화행 전략의 교수 학습 방안 연구 -한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전략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49, 한국어 의미학회.
- 이준호(2008).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의문문 교육 연구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문문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19권2호. 279-304.
- 이준희(2001), “명령문의 간접화행”, 한국어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279-290.
- 장경희(2005), “국어 지시 화행의 유형과 방법 및 지시 강도”, 텍스트 언어학 19, 한국 텍스트언어학회, 185-208.
- 柏崎雅世(1993), 『日本語における行爲指示型 表現の機能』, 日本語教育基礎研究シリーズ1, くろしお出版.
- 加藤重廣(2004), 『日本語語用論のしくみ』, 東京: 研究士.
- 大平佳和(1999), 行爲指示型疑問文の依頼用法にする一『英山論叢』24-40号.
- 森田良行(1989), 話す行爲を表わすことばとその意味体系, 『日本語學』11.
- 態谷智子(1997), はたらきかけのやりとりとしての會話-特徴の束という形でみた‘會話機能’-對話と知一談話の認知科學入門-, 新耀社.

-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第Ⅱ』, くろしお出版.
- Blum-Kulka, House and Kasper (1989), *Cross-Cultural and Situation Variant in Requesting Behavior*.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Ablex.
- Ellis, Rod(2002), “The Place of Grammar Instruction in the Second/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 Hinkel, Eli & Fotos Sandra(2002).
- H. Douglas Brown(2010)5판,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김홍수 외 역, Longman.
- Leech, G. 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Longman.
- Tsui, George(199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이은희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36-701

전자 우편: yeh900@hanmail.net

원고 접수일: 2016. 08. 10

원고 수정일: 2016. 09. 22

게재 확정일: 2016. 09. 24